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사랑 제목 :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성경:누가복음 6장 26-36절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26-36)

26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받

아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너무 의인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전7:16)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7:20)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힘을 너무
쏟거나 몰두하거나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는가?

물론 내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지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나에게 욕을 하
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다.

또 선을 행하면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판한다. 예수님도 그리 선
을 많이 행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반대하고 대적하였으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하나님도 그토록 선하시지만 세상에는 배은망덕이 가득하다.

그러니 내가 선을 행하다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
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러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싫
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매서운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을 받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다....

너무 의인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다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너무 의인되려는 시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이다. 마치 암덩어리가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칭찬을 받으려는 노력과 자신이 의인임을 변명하려는 노력은 어린이의 모습인 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노력은 어른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의 행동강령으로서 최고봉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악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의인 그룹에 속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의인 그룹 안에서조차 미세하게 의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옳으냐로 다투다보면 천국에 가서도 다투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의인의 그룹에 속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라. 다투려는 순간 그는 암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에 몰두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욱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원수 사랑의 지침을 살펴보자.

27...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라는 뜻이다.

미워하는 자에게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비판하지 않고, 같이 때리지 않고, 같은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선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곤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를 도와 주어야 한다.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소를 끌어 내 주어야 한다. 원수의 자녀가 헐벗고 있다면 그를 도와서 헐벗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를 이웃처럼 살갑게 대우하지는 못할 지언정 선대할 수는 있지 않는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명인에게 선대하듯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이다. 수학적 원리를 생각해 보자. 저주는 - 축복은 +다.

원수가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합당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원수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튼 모두 -로 끝난다.

모두에게 손해다.

그러나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축복하면 축복은 +다.

원수의 -를 +로 돌려 놓았으니, 일단 나는 손해가 없다. 혹 원수가 잘못된 저주를 해서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축복을 하였으니 내가 그를 선대한 것이 된다. 그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되어서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손해를 때론 댓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욕감은 악행을 유발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비아냥거림은 내 속에 있는 악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힘이 있다. 잠자는 사자의 콧털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아야 한다. 원수의 말이 전혀 틀린말은 아니다. 이 점이 뼈아픈 말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결백하다고 외치면 추하고 못한 모습이 되지만,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는 모습은 거듭난 의인의 모습이다.

모욕하는 자도 자신의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그도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 또 중보이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힘을 잃고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29 너의 이 빵을 치는 자에게 저 빵도 돌려대며 네 걸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26-36)

<찬양예배>

주제:예배 제목: 축제와 같은 예배 말씀:이사야 1장 11-17절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1:11-17)

예배를 위한 예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예배는 가치 있다.

신령한 예배도 가치 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예배를 위한 예배란, 헌신이나 기대감이 없는 예배.

예배는 예비되어야 한다. 충분히.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한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예배를 준비시키는 자가 되자. 진정한 리더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특히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배를 예비하는 것이다.

삼일예배 휴대폰 준비